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6월 1일 ~ 7월 10일 본당과 지교회에서 진행

광림교회 신앙의 전통

40일간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1일(월) ~ 7월 10일(금)까지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1989년에 시작된 호렙산 기도회는 38년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광림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영적 큰 줄기가 되어왔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적극적인 신앙의 전통으로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본이 되고 있다.

올해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시 73:28)이며,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처럼 인생의 참된 복은 세상의 풍요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데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는 새벽 4시 45분부터 40일간 진행되며 몽골, 베트남, 잠비아 등 9개 나라 12개 광림미션센터를 비롯해 국내외 성도들도 영상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삶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6주 동안 매주 주제를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제에 맞는 은혜로운 찬송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성도들은 ‘예수의 길’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성품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주에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전해졌다. ‘이제 역전되리라’를 찬양하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큰 위로를 얻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보일 것 같지만 막상 길 위에 서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바른 길을 알려주시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하는 능력이며,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힘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

광림의 성도들은 이른 시간 예배당에 나와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되새기며 핸드북에 필기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또한 예배 후 통성기도 시간에는 매일 주어지는 공동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은혜로운 기도회를 위해, 열방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의 제단, 안디옥개신교회 재건, 가정과 개인, 일터와 삶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본당 로비에 마련된 기도의 벽에는 상한 심령의 치유와 질병 회복, 성령 충만함과 가정, 자녀의 축복 등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으며, 이 기도는 메마른 영혼 위에 새 힘으로 부어지고 있다. 본당 계단 벽에는 호렙산 기도회의 감동, 눈물과 기쁨이 담긴 사진들이 부착되어 기도회의 열기를 전하고 있다.

···› 3면에 계속

2 광림의 강단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운 자
3 광림 스토리 맥알리스터 총장 주일 설교
4 특집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봉헌예배 및 수료식 사진전
7 목회현장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운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눅 16:8)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의문을 남기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남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청지기를 책망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2절).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가 하던 일을 결산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인계하라고 말합니다. 즉, 청지기는 자신의 직임에서 해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3절).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인심을 쓰는데, 기름 백 말을 빚진 사람은 증서에 오십이라 쓰게 하고, 밀 백 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증서에 팔십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으로 보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요, 배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를 보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기도문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는 세 가지를 구합니다. 용기, 냉정함, 지혜.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중에 첫째 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아는 것이요, 셋째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날을 바르게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안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물질, 시간, 능력이 내 것인줄 알았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2절)라고 했을 때, 청지기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이 "네가 잘못했으니 직분을 중지하리라" 했을 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심판을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요, 지혜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1~8

1.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둘째, 남은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없어진 것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권한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셈하라고 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면, '현재'일 것입니다. 영어로 'Present', '선물'과 '현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하여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이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다시금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인 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선을 베푸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칭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았던 청지기, 그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주인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귀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알고, 내가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를 알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깁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비록 지난 시간에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이런 지혜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활기찬 토요일 호렙산 기도회

매주 토요일 호렙산 기도회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교역자, 남선교회가 특송을 힘차게 올려 드렸고, 여선교회, 청년부, 교회학교의 찬양도 이어질 예정이다.

각 선교구는 호렙산 기도회 후 새벽에 모여 연합속회를 드리며 믿음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교회학교는 다음 세대가 호렙산 기도회의 뜨거운 영적 열기를 직접 경험하고, 기도를 통한 응답의 감격을 누리며, 가족이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본당 로비와 구름다리 입구에서 '호렙 굿즈'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키캡을 활용해 스티커를 모으는 행사와 매 주일 '레벨 업 호렙산 등반기'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기도회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손길이 있다.

목회선교지원실은 매일 말씀 자료를 준비하여 말씀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해주며, 기드온선교회는 주차 안내를 돕고, 예배위원회는 은혜로운 예배와 안전을 담당하며, 방송실과 중계 카메라는 온라인 생방송을 송출한다.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위원회, 오르간 반주와 찬양, 연주팀 등의 헌신은 호렙산 기도회를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있다.

소현수 기자

목회자 찬양

광림교회와 웨슬리신학교, 아름다운 동반자

웨슬리신학교 맥알리스터 총장 '절박한 부르심' 말씀 전해

지난 5월 31일, 웨슬리신학교 맥알리스터 총장이 광림교회를 방문하여 2부와 3부 예배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맥알리스터 총장은 광림교회와 웨슬리신학교가 감리교 부흥의 역사와 세계를 무대로 한 위대한 동역자임을 상기시켰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룰 '생명과 섬김을 위한 사명'이라고 일깨우면서 광림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Call)에 응해서 행동할 것을 권면했다.

웨슬리신학교 신경림 부총장의 통역으로 진행된 맥알리스터 총장의 설교 말씀을 전한다.

'회개'와 '천국'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저는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 절박함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마음을 바꾸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이 땅에서 하늘 나라의 대사로 복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천국, 생명과 섬김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사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만 찾아가는 곳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길이자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 섬김을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억해야 할 분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공부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할 분입니다.

웨슬리신학교와 광림교회, 세계를 무대로 한 위대한 동역

감리교 부흥 운동을 통해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감리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고아원과 병원, 학교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웨슬리신학교와 광림교회는 감리교도이자 천국 메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미국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광림과 웨슬리의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가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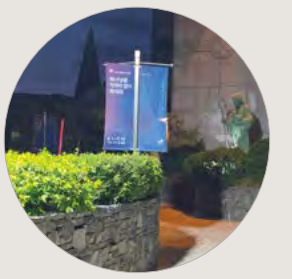
우리를 향한 절박한 질문

아직도 전 세계에는 천국의 약속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정체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와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구원의 군대가 천국과 세상의 경계선을 건너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안미영 기자

포토 뉴스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6월 1일 ~ 7월 10일까지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40일간 진행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 현수막

호렙산 기도회 로고라이트

교회학교 호렙산 기도회 호렙 굿즈
매주 토요일에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호렙 굿즈
(키캡과 출석 스티커)를 선물로 나눠준다.

감독회장 동정

6/1~7/10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6/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취임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봉헌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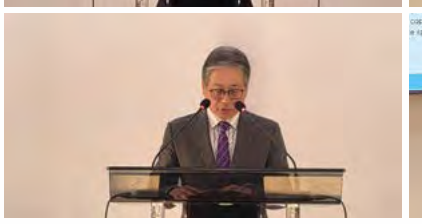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2023년 1차 봉헌(제1교육동,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숙소) 이후,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사역이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과 유치원 운영을 비롯하여 미혼모와 취약층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적 인식 교육,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올바른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한 신학교 세미나 등 다양한 선교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의 확장과 필요에 따라 2024년 말부터는 채플과 제2교육동, 기숙사 건축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2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2026년 5월 26일 봉헌예배를 드리며 건축 완료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광림 채플〉 건축 완료
- 예배당 공간 약 300㎡ (약 91평)
- 전체 채플동 규모 약 400㎡ (약 121평)
- 약 250석 규모의 메인 채플홀
- 소회의실, 사무공간 및 화장실 시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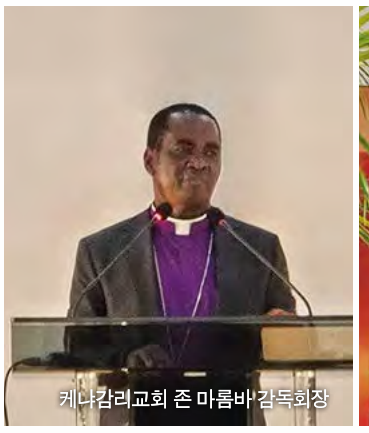
〈제2교육동〉 2026년 8월 건축 완료 예정
- 2층 구조의 교육동 건물
- 총 9개 Classroom 및 ICT Classroom 구성
- 전체 교육동 규모 약 700㎡ (약 212평)

〈기숙사동〉 건축 완료
- 총 12개 생활실(4인 1실) 및 화장실, 샤워실 구성
- 남녀 생활 공간 분리 구조
- 전체 기숙사동 규모 약 365㎡ (약 110평)

〈식당〉 건축 완료
- 약 80~100명 수용 가능한 식사 공간 구성
- 전체 규모 약 195㎡ (약 59평)
- 공동체 교제와 사역 지원을 위한 다목적 식당 공간



UMC 루사카 성가대 특별찬양


케냐감리교회 존 마롬바 감독회장

광림스쿨 어린이 찬양

성서복음교회 찬양단 헌금송

잠비아 광림신학교, 아프리카 복음화의 거점을 세우다

2023년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봉헌과 함께 문을 연 '잠비아 광림신학교'는 미국 워싱턴 D.C.의 웨슬리신학교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아프리카 전역에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세계적인 명문 신학 대학들의 전폭적인 강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신학교에서 구약학, 신약학, 목회학 등 총 10개 과목의 신학 강의를 전담하였고, 영국 옥스퍼드선교대학원(OCMS)에서 선교 관련 2과목, 광림교회에서 목회와 전도 관련 2과목을 지원하여 깊이 있는 학문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케냐감리교회 감독회장인 존 마롬바 감독이 직접 '아프리카 영성'에 대한 생생한 현장 강의를 맡아 큰 은혜를 더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처음 신학을 접하는 예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 중인 현지 목회자들도 연장 교육으로 참여하여 뜨거운 배움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영광스러운 수료를 마친 현지 학생은 총 16명입니다. 앞으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와 주요 중소도시에 역동적인 교회 개척 프로그램(Church Planting)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림신학교 수료자 명단(16명)

Aliess Zulu, Bernard Nsama, Blessing Zulu, Bridget Phiri, Cecilia Soko, Cephas Siabbweka, Dainess Chabala, Elizabeth Banda, Gabriel Zulu, Harrison Phiri, James Banda, Jane Kalobwe, Kelvin Mukisi, Magarate Mbao, Ruth Sakala, Victor Mtonga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CERTIFICATE OF COMPLETION

Aliness Zulu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named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Three-Year Theological Training Program
of KWANGLIM THEOLOGICAL SEMINARY IN ZAMBIA

May 26, 2026

잠비아 광림신학교 수료증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최성령 선교사

수료증을 받는 학생

해리슨 피리 1기 학생회장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봉헌 기념 십자가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채플

목회현장

주를 향한 일편단심, 1선교구

우리 1선교구는 도봉구와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성동구(옥수동), 중구, 은평구, 그리고 서대문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성동구에서부터 멀리는 도봉구에 이르기까지 교회로부터 거리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1선교구의 주를 향한 마음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선교구 안의 모든 속회와 선교회, 일일기도회에 은혜를 기대하며 잘 모이는 선교구입니다.

장로님들과 선교구 임원들과 지구장, 속장들께서 앞장서서 모임에 참여하고 독려해 주신 덕분에 거리와 상관없이 기도회, 교구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6년 상반기에는 남성 속회가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나눴는데, 각 교구의 임원들과 장막을 예배처로 헌신해 주신 장로님들의 귀한 헌신 덕분에 더욱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1선교구의 열정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며, 속회마다 부흥하여 광림 제단의 예배 자리를 가득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돌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선교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한 성도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새가족위원들과 교구 성도들께서 예배, 트리니티, 교구 모임이나 속회 등 신앙생활에 대해 살갑게 안내해 주신 덕분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새가족에 대한 따뜻한 돌봄과 장례 등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를 위해서 위로의 연락을 하고 찾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힘쓰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전교인 선교 한마당에 1선교구에서는 아나바다로 동참한 성도님들과 밤새 반찬을 만들며 헌신하신 권사님, 식혜를 만들어 후원해 주신 권사님 등 많은 분들이 재능과 물질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선교구와 자매결연을 한 아펜젤러 선교센터를 위해 설날에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한 '떡국 한 그릇 섬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선교사님들의 국내 성지순례(철원)를 위해 후원하는 등 하나님 눈길이 머무신 선교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1선교구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선교구가 되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구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선영진 목사(1선교구)

자랑스러운 우리속회

은혜와 사랑으로 새긴 이름,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되다

21교구, 속도원별 성경 가방이 있는 속회

광림교회 21교구 남성 속회는 전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각 가정을 순회하며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일 예배 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드리는 속회 예배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속회는 속도원들이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섬깁니다. 이를 위해 연초에 1년 일정표를 세워 미리 준비하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속도원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합니다. 속회 때마다 아픈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말씀처럼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속회를 더욱 빛나게 한 일은 한상욱 권사님의 섬김이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성경과 찬송가를 담을 수 있는 손가방을 정성껏 준비해 각자의 영어 이니셜 이름을 새겨 속도원 10명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가방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사랑과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예배 자리에서 같은 가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떠올립니다. 그 안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며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이 가방은 21교구 속회의 형제애를 나타내는 귀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작은 섬김이 큰 감동이 되어 공동체 전체를 은혜롭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속회는 일상을 예배로 세워 갑니다. 매주 이어지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김호근 권사(21교구)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26년 제1차 성인 세례 및 입교 예식> 5월 31일 주일, 김정석 감독회장 집례로 38명 세례, 23명 입교

세례 →	2교구 김은미	3교구 박은숙	4교구 김은경	5교구 이애옥
10교구 유귀현	10교구 이우석	11교구 이영은	13교구 정민기	14교구 여슬기

16교구 최민철	16교구 한은지	16교구 이민영	17교구 이주하	19교구 구형모
19교구 이동순	19교구 손주현	20교구 황유정	20교구 윤희경	20교구 전선옥
21교구 윤숙경	21교구 정영미	21교구 조수하	22교구 송병곤	24교구 이예니
24교구 노수빈	25교구 이수연	27교구 조현주	27교구 박세은	28교구 안연희
29교구 전민형	29교구 정민주	52교구 조형선	75교구 이여린	88교구 유규민
88교구 정선아	88교구 조수형	88교구 조에밀리	88교구 크리스티나	
입교 →	16교구 신현준	16교구 박은우	16교구 전승호	18교구 김주호
20교구 김채현	21교구 남신우	21교구 신승윤	22교구 박민서	23교구 서지민
23교구 김은영	23교구 김민장	23교구 고다연	24교구 최지현	27교구 안나영
28교구 양지안	52교구 고하영	52교구 고서연	52교구 이다빈	52교구 이효빈
75교구 배기환	88교구 윤나은	88교구 이혜지	88교구 조현이	

경조위원회, 영월 영성수련회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는 5월 21일, 위원회 임원 및 각 교구 경조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월에서 영성수련 기도회를 열었다.

교회에서 출발한 경조위원들은 전날부터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화제가 되고 있는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비가 와서 야외활동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조금씩 비가 그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햇볕도 나지 않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 수련회를 갖는데 아주 적합한 여건을 안겨 주었다.

고요한 강물에 둘러싸인 섬 같은 지형과 소나무 숲이 만들어내는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어 천혜의 자연 감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단종이 머물렀던 어소와 자신의 슬픈 처지를 한탄하며 울었다는 관음송, 그리고 한양에 남겨진 왕후를 그리워했다는 망향탑과 노산대를 둘러보았다.

이어서 평창에서 영월로 흘러오는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수되어 서강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전망대를 찾았으며 이곳은 한반도를 닮은 모습으로 계절마다 특색있는 경관을 보여주는 명승이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선암마을로 가서 뗏목체험의 시간을 가졌는데, 선암마을 뗏목은 평창강 물줄기가 만들어 놓은 한반도 지형의 동해안을 출발해 서해안까지 1km 구간을 30분가량 순례하면서 강에 발을 담그는 체험도 했다. 성수기에는 뗏목 2대가 잇달아 운행하지만 관광객이 적을 때는 1대만 운행하는데 뗏목체험 후에 마침 출항을 하지 않는 빈 뗏목이 있어서 협조를 구해 그곳에서 영성수련 기도회를 가졌다.

먼저 다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른 후에 배경호 장로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는 말씀을 낭독했다.

이어 경조위원회 총무인 조항장 권사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교회', '가정과 개인의 기도'를 강 위에 놓인 뗏목 위에서 힘차게 통성으로 외쳤으며 조권사가 마무리 기도를 하며 마쳤다.

부부가 같이 온 유제형 집사(18교구)는 "경조위원회에서 봉사한 것이 10년이 넘었고, 영성수련회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보내는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교회를 떠나 야외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통성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은혜로웠습니다"고 했다.

배경호 장로는 "2년에 한 번 영성수련회를 갖는데 올 때는 비가 와서 걱정하였지만 비가 그치고 보니 사람들도 덜 붐비고 공기도 좋아 더 은혜가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환경에서도 운영을 잘 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자들이 함께 와서 힘을 얻고 영적 재충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경조위원회에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지지를 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득섭 기자

중등부,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시기

중등교육위원회 위원장 - 박철우 장로

2024년 장로로 피택된 박철우 장로는 현재 광림교회 중등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대학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박 장로는 중등부 사역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소명과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중학생 시기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던 단계에서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고 가치관을 세워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박철우 장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림교회에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은?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아내 이희숙 권사를 만나면서 1991년부터 광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 등록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신앙의 여정에는 아내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장로 피택 역시 하나님께서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으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중등부 사역을 맡게 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미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등부를 맡게 되었을 때도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중학생들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과 미래를 품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생깁니다.

중등부, 평생 신앙의 뿌리는 내리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학교 시기는 부모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아가 형성되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이 평생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요.

중등부 교사들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한지요?

중등부에는 20년, 30년 가까이 헌신해 온 귀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청년 교사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 속에서도, 직장인 교사들은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부부 교사들은 출산과 육아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의 역할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사들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등부는 교사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중등부를 위해 가장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진자 회복입니다. 현재 중등부와 2부를 합쳐 1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예배에서 멀어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고 심방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 충원입니다. 특히 중등 2부는 분반공부를 위한 보조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중등부 공동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장로는 "중등부는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바뀌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늘도 박 장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28

시내산 위의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출 34:27)

모세는 또다시 시내산에 올랐다. 그리고 모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본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모세의 눈에서는 빛이 뿜어 나와 누구도 그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모세가 다시 들고 온 새로운 석판 두 개에는 이전에 깨어 부숴버린 석판에 쓰여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가 담긴 열 가지의 계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네 이웃집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째, 네 이웃집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드디어 유대인들에게도 계율이 생겼지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가 없었다. 이에 모세는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실상 그곳은 나무판자로 가리개를 한 교회였다. 이후 광야의 방랑 생활을 마친 유대인들이 도시에 살게 되자 벽돌과 대리석과 화강암을 이용하여 성소를 건축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다.

또한, 정해진 계율에 따라 성소에서 예배를 집전할 제사장이 필요했다. 이 일에는 황금 송아지 숭배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준 레위 지파가 선택되었다. 이후 레위 지파는 유대 역사에 늘 등장하게 되었다. 이집트에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핵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되었고, 이후 그들의 사회와 종교생활의 규범이 되었다. 모세는 십계명을 토대로 유대인들의 조직을 정비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그 지위가 형 아론과 아들, 손자에게 대대손손 세습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대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몹시 애를 먹었다. 여러 가문의 사람들이 누구를 직접적인 수장으로 인정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여러 지파로 구분하고, 각 지파에서 장로를 선출했다. 사사(士師)라 불린 이들은 소소한 불평을 모두 듣고 논쟁이나 분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 **놋뱀**_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에 물린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하였다. **루벤스 작품**

▲ **약속의 땅**_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 장면이다. **니콜라 푸생 작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조직과 체제를 정비한 모세는 야영지를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동안 유대 민족 위에 떠다니면서 사막에서 갈 길을 보여주었던 구름 기둥이 성궤, 즉 언약궤 위에 내려앉았다. 이 성궤에는 십계명의 판이 들어 있었다. 레위 지파는 성스러운 임무, 즉 영원히 성소의 중앙에 선다는 의무를 받아들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끝이 보였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했다.
유대인들이 죄를 고백하자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게 했다.

요단 강에 가까워질수록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족의 태도도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의 자손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들은 네피림(Nephilim, 거인족)의 후손으로 큰 키에 힘이 장사였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두려움에 떨었다.

모세는 이런 소문을 잠재우고자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염탐하게 했다. 얼마 후 언제나 모든 일에 열성적인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찾은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땅이 비옥하고, 우유와 꿀이 넘쳐난다고 보고했다. 물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려면 전쟁을 각오해야만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미 공포심이 가득했다.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 민족은 뜨거운 사막과 광야를 건너오면서 목마름과 굶주림 등 갖은 고생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었다.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은 여전했다.

결국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포악한 이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유대인들은 고함을 질러댔고 서로 자기 주장을 떠들어댔다. 모세와 아론과 용감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였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이 났고, 그의 목소리가 성전 지붕에서 들렸다.
유대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왔고, 이제는 믿음이 부족한 벌로 40년 동안 사막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등지고, 4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양치기로 살았다. 그들의 후손들은 이전 세대가 겪은 이집트 생활을 점차 잊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여 이스라엘 선조들의 단순한 생활방식을 다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모세는 만족했고,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 성 맞은 편 모압 땅의 느보산에서 향년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광림 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